

IMF 서베이

한국-IMF 컨퍼런스

IMF 총재, 아시아와 새로운 유대 관계를 확립하기를 희망

IMF Survey online
2010년 7월 7일



IMF의 스트로스-칸 총재(왼쪽)와 한국의 한덕수 대사: IMF-한국 컨퍼런스는 아시아의 발전 및 성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다. (IMF 사진)

- 아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이 향후 12개월 간의 IMF의 주요 목표
- 한국 컨퍼런스는 IMF가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행사
- 아시아 대사들, IMF-아시아의 긴밀한 유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

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컨퍼런스를 앞두고 지난 6월 30일에 IMF 워싱턴 본부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한 20여 명의 아시아 대사들을 환영했으며, IMF는 이 컨퍼런스가 이 역동적인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.

IMF와 여러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유대관계는 10여 년 전에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으며, IMF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대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.

스트로스 칸 총재는 대사들과 다른 고위 관리들에 대한 환영사에서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해 회고하고, 아시아와 이 기구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“향후 12개월 간의 IMF의 주요 목표”라고 강조했다.

“저희는 책임을 회피하기를 원치 않으며, 오히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”라고 스트로스 칸 총재는 말했다.

미래지향적 지원

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IMF와 한국 정부가 조직하고 7월 중순에 한국 대전시에서 개최될 [conference](#)이 IMF가 아시아를 지원할 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.

“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으나, 저희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”라고 그는 말했다. IMF는 기술 지원, 자금 대출, 정책 조언과 같은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경청하는 IMF

돈 프라무드위나이 태국대사는 스트로스 칸 총재의 연설을 환영했으며, 태국은 아시아에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다.

“저는 [IMF가] 이제 더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”라고 프라무드위나이 대사는 말했다. “제가 IMF 총재로부터 들은 답변은 그가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.”

서울에서 온 외교관인 한덕수 대사는 동료 대사들을 IMF-한국 컨퍼런스에 초청하면서 이 회의가 아시아의 발전과 성장을 과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. 한대사는 아시아 경제가 개방된 경제체제와 신중한 규제,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정부 개입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
“아시아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, 그리고 분별있는 규제와 기업의 자유를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”라고 언급했다.

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

전세계가 반세기만에 발생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주도해온 아시아는 지난 몇 개월 간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. 아시아의 경제 회복 속도와 성장에 대한 예측(한 IMF의 평가에 의하면, 아시아는 향후 20년 간 세계 최대의 경제 지역이 될 전망)은 이 지역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.

“아시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며, 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. 이제는 세계가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가 되었고, 한국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”라고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경제담당관인 무하마드 와히드 호세인은 말했다.